

제공일자	2015. 1. 7 (수)	담당자	전용식 연구위원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02-3775-9051)	연락처	02-3775-9035
			총 3매

제목 : 보험연구원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보고서 발간

- 보험연구원(원장 강호) 전용식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보험회사 해외사업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의 경우 미미한 시장점유율과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기업성보험 중심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사업이 활성화되어 신성장동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을 고려한 명확한 경영목표 설정, 해외사업 관련 비용과 현지 시장수요를 고려한 상품·채널 전략,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사 협력,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자본조달 방안 다양화가 필요함.

□ 보험연구원은 동 보고서에서 해외사업 경영성과가 미미한 원인을 해외사업 관련 비용을 보험회사가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 진출한 국내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중·하위권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중·상위권임.
- 생명보험의 경우, 진출국 시장집중도보다는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여 시장경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판매채널의 불안정성과 높은 경영관리 비용 지속으로 경영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손해보험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성보험중심으로 소폭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보험 등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영업은 성과가 미미함.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경영성과

구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시장 점유율	생명	28개 외자계 중 15위, 18위	16개 보험회사 중 9위	-	24개 생보사 중 19위
	진출회사	2개	1개	1개	1개
	손해	21개 외자계 중 3위, 10위, 12위	• 시장 5위 • 외자계 21개 중 1위	18개 외자계 중 3위, 10위, 12위	-
	진출회사	3개	1개	3개	
수익성	생명	적자	적자	-	적자
	손해	소폭 이익	소폭 이익	소폭 이익	-

주: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산규모로 분석하였고,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최근 진출하였으나 경영성과가 매우 미미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 국내 보험회사들의 본격적인 해외사업이 약 10여 년이 지났지만 **해외사업 관련 비용관리의 어려움** 지속으로 경영성과가 부진함.
- 선행연구들은 해외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부담해야만 하는 비용* (Liability of Foreignness)”을 통제하는 것이 경영성과 개선에 중요하다고 지적함.

* 해외사업 관련 경영관리 비용, 정보 비대칭성, 현지 규제, 인식 차이 등에서 발생함.

□ 그리고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정책적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전략적 측면에서는 ①핵심역량을 고려한 명확한 경영목표 설정, ② 해외사업 관련 비용과 현지 보험수요를 고려한 상품·판매채널 전략, ③진출국가와 방식의 다변화, ④현지화 촉진을 위한 현지 국내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⑤현지에 진출한 보험회사의 사업다각화 등이 필요함.
- ① 전세계적인 금융회사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해외사업 경영목표와 달성 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 ② 진출국가들의 경우 보장성보험보다 저축성보험 수요가 더 크기 때

문에 이에 적합한 상품·판매채널 전략을 추진해야 함.

- ③ 현지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여건이 비우호적일 경우,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내적성장 전략보다는 현지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혹은 인수·합병을 통한 외적성장 전략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④ 국내 보험회사의 인식제고를 위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함.
- ⑤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보험회사들은 현지 보험회사뿐 아니라 글로벌 보험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범위·규모의 경제 효과가 필요함.
- 정책적 측면에서는 ①국가간 보험인프라 협력, ②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자금조달 방안 다변화 등이 필요함.

- ① 보험산업의 경우, 현지의 공적 저축·조세 제도, 보험산업 규제 등이 거래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장벽을 낮추기 위한 국가간 보험인프라 협력이 필요함.
- ② 보험회사가 해외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채권발행 등 외부 차입은 재무건전성 안정화와 유동성 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자본조달이 어려움.

* 일본의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일본생명의 경우,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2009년 이후 미국, 독일,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금융·보험회사에 지분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업 핵심역량과 해외사업 관련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함양되어야 함.

- 보험회사의 핵심역량, 경영전략, 인력 및 자본 등이 해외사업 관련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해외사업 자본 확충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본조달 방안 다변화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붙임 : 조사보고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요약본. 끝.